

공약 간데 없고 네거티브 난타전...누가돼도 ‘상처뿐인 영광’

더민주 내일 전당대회...당대표·지도부 선출

친문 성향 대의원·온라인 당원 전략투표 여부 변수
양향자 VS 유은혜...여성 몫 최고위원 경선도 관심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8·27 전당대회가 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선 과정이 정권 창출의 비전 및 역동성 창출보다는 계파 논리에 매몰되면서 민심이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로운 대표는 당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은 물론 정책 수립과 의제설정, 나아가 내년 대선에서의 전략과 비전을 두루 제시하며 정권 창출의 가능성을 높여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선 과정은 이와는 거리가 참 컸다는 비판이다. 그동안 당의 전통적 기반인 호남의 적통 경쟁과 당의 유력 대권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의 심증을 끌어들이거나 비판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던 것이다.

당내 비주류임을 자처하는 이종걸 후보는 “지금의 문재인으로는 합당하다. 지금은 ‘도문’(도로 문제인)이라는 비판 속에 제3지대 정치영역이 만들어진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범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 김상곤, 추미애 후보를 연일 맹공하고 있다. 김 후보는 “한 일없고 큰 사고 친 5선 의원들”이라며 이·추 후보를 깎아내렸고, 특히 추 후보에 대해서는 ‘호문’(문재인을 호가호위한다는 뜻)이라는 ‘낙인

찍기’에도 나서고 있다.

이에 추 후보는 ‘호남의 판머느리론’을 연일 주창하면서 ‘이래문’(이래도 저래도 문재인)이라는 공격에 “이제부터는 ‘이래민’(이래도 저래도 민주당)이라고 해달라”고 맞불을 놓고 있다.

막판 변수로는 ‘도로 친문당’이라는 세간의 우려로 전당대회 당일 대의원 표심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전대 결과가 대의원 표심과 온라인 10만 당원 등 친문 세력의 입김에 크게 좌우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대선을 앞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편,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와 유은혜 의원이 맞붙는 여성 위원장 경선이 치열한 경쟁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김 후보는 “한 일없고 큰 사고 친 5선 의원들”이라며 이·추 후보를 깎아내렸고, 특히 추 후보에 대해서는 ‘호문’(문재인을 호가호위한다는 뜻)이라는 ‘낙인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양향자



유은혜

는 안정감이, 전남 출신의 양 후보는 화제를 모은 영입인사인 만큼 참신함이 강점으로 꼽힌다.

여기에 두 후보 모두 범친문(친문재인) 성향의 후보라는 점에서 당내 최대계파인 친문진영의 지지가 갈라지고 있다는 점도 경선을 더욱 흥미롭게 하고 있다. 일단, 기존 당원들 사이에서는 유 후보가, 온라인 당원



“큰 소리 내서 미안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황주홍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틀 전 황 의원과 고성이 오가는 충돌을 빚은 데 대해 사과했다.

들을 중심으로 양 후보가 우세를 점하는 것으로 알려져 어느 쪽이 투표에서 위력을 발휘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철수 ‘호남 메시지’ 뭘까

27~28일 광주·전남 방문
무등산 첫 산행
광양 ‘내일포럼 전남’ 강연



행을 할 예정이다. 안 전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중요한 정치적 고비 때마다 광주를 방문했지만, 무등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7일과 28일 이틀간 광주와 전남을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당일이어서 안 전 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안 전 대표가 무등산 첫 산행에 나설 예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7일 광양커뮤니티센터 다목적 홀에서 지지 후원 단체인 ‘내일포럼 전남’이 초청한 강연회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어 구례에서 열리는 ‘2016 권유지너 록페스티벌’에 참석한 뒤 이날 저녁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 위원장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28일 오전에는 지지자들과 무등산 산

산을 등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안 전 대표의 첫 무등산 산행에 대해 야권 심장부에서 대선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호남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작지 않은 만큼 ‘호남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이어 지역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나주로 이동해 한전 KPS 1층 빛가람홀에서 지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철수와 함께 대한민국 희망’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친박친문 빼고 다 헤쳐모여?...정계개편론 꿈틀

새누리 친박 지도부 반기문 카드 내세워 ‘서진 정책’

더민주 전대 친문 지도부 장악팬 ‘제3지대론’ 속도

더민주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정치권에서는 정계개편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더민주의 전대 결과, 지도부가 사실상 친문(친문재인) 성향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 대선을 겨냥, 다양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서진(西進) 정책 카드=일단 친박(친박근혜) 진영으로 지도부가 구성된 새누리당은 서진 정책을 기반으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충청권 주자를 영입, 기존의 영남 기반에 호남 지지세를 더한다면 대선에서의 필수 시나리오가 완성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는 지난 24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호남에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며 “과거 DJP 연대 등과 같이 호남과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영남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과 호남을 안방으로 삼고 있는 국민의당이 세력을 규합한다면 ‘지역구도 극복’이라는 명분을 얻으면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으나,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과의 대선 연대 시나리오는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당에게는 오히려 역풍이 불면서 당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서진 정

책은 이론상으로 가능하지만 정서상으로는 쉽지 않다”며 “결국 호남의 민심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대선 후보와 새누리당의 진정성이 맞물려야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제3지대론=야권에서도 새 판짜기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더민주 전대에서 친문 진영의 압승이 예상되고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대권주자들의 활동 공간이 좁아질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흐름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최근 새누리당내 친박과 더민주 친문 진영을 제외한 정치세력과 대선주자들을 한데 모으는 ‘중간지대 플랫폼’ 띄우기에 나섰다. 안철수 전 상임대표도 “양극단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표는 나아가 충청의 맹주인 김종필(JP) 전 총리와 추석전 ‘냉면 화동’

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비주류인 김종인 비대위 대표의 행보도 주목된다. 김 대표는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일개 계파가 전체를 그냥 다 끌어 잡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며 “(일개 계파가) 뭉치는 힘만 가지고 (정권 교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친노 지도부 출범이 현실화된다면 중간 지대를 향한 당내 비주류 진영 인사들의 발길도 현실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정계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정계 개편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손 전 상임고문은 최근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불문,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을 만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태+애호박전	4k	96,000
	육계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쇠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리고추멸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북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코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도)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도)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골떡/절편	6k(3도)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쌈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생삼겹(국내)쌈	5k	190,000			
장례용품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0.6오동관	1개	200,000	저축물및음식물처리비용	2회	100,000	향/원장(세트)	1개	5,000
	수리(화장)	1벌	200,000	수세복	1벌	30,000	넋배	1회	150,000
	초립비	1회	100,000	액자리본(고급)	1개	5,000	임관용품	세트	150,000
	안치실	1회	100,000	향위패	1개	20,000	양초(대)	1개	10,000
	염습비	1회	300,000	발인세트	세트	80,000	여상복	1벌	18,000
	염실임대료	상조	250,000	부위록	1권	15,000	넋타이	1개	3,000
	주류·음료	소주 1,500 / 맥주 1,600 / 콜라, 사이타 700							

맛과 품질과 중량을
반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싶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